# 2025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



# 목 차

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	
① 시제품·연구·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('25. 2월 시행 예정)	p.1
② 단일보세공장 거리제한 특허요건 완화('25. 2월 시행 예정)	p.2
③ 자율관리(우수) 보세공장 지정요건 완화('25. 2월 시행 예정)	p.3
④ 보세공장 잉여물품 관리 간소화('25. 2월 시행 예정)	p.4
⑤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신청가능 협정·대상 확대('25. 1. 1. 시행)	p.5
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	
6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 조정('25. 1. 1. 시행)	p.6
⑦ 일시수출입 특수차량 신고인 확대('25. 6. 1. 시행 예정)	p.7
8 우수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신고 자동수리 확대('25. 2월 시행 예정)	p.8
⑨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시행('25. 1. 1. 시행)	p.9
[10]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대상 확대('25. 1. 1. 시행)	p.10
① RCEP 수출자·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('25. 1. 1. 시행)	p.11
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	
12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 ('25. 1. 1. 시행)	p.12
[3] 수입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 확대('25. 1. 1. 시행)	p.13
[4] 부정행위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('25. 1. 1. 시행)	p.14
<b>⑮ 과세자료 제출기관 추가</b> ('25. 1. 1. 시행)	p.15
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	
[6]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범위 확대('25. 1. 1. 시행)	p.16
① 가격조작죄 벌금형 산정기준 합리화('25. 1. 1. 시행)	p.17
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('25. 1. 1. 시행)	p.18

## ① 시제품·연구·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

(보세산업지원과, 042-481-782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연구·시험용 목적으로 자율관리	□ 간소화 대상과 장소 확대
보세공장에서 반출 시 장외작업	
절차 준용(제29조의2)	
*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될 기자재·원재	
료 등은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함	
<ul><li>(대상) 견본품</li></ul>	• (대상) <u>원재료·시제품·</u> 견본품
• (장소) 기업부설연구소	• (장소)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
	<u>구개발 전담부서</u>

# 개정전 • 자율관리보세공장 S사는 연구용품·시제품을 연구·개발부서로 반출 시수입통관을 거쳐야 해서 연구·개발·검증 지체 및 제조 공정 지연 개정후 • 연구개발 전담부서도 물품 반출입이 간소화되면서 시험·연구, 신제품 개발, 불량 원인 분석 대응이 빨라짐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

- □【기대효과】제조공정 투입 전 원재료·시제품 등의 시험·연구와 신제품 개발 효율성 향상, 불량 등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대응 가능
- □【시행일】'25. 2월 시행 예정(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29조의2 개정)

#### ② 단일보세공장 거리제한 특허요건 완화(15km 이내 → 30km 이내)

(보세산업지원과, 042-481-782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단일보세공장* 특허 요건(제7조)	□ 거리제한 완화
* 동일업체의 근접한 2개 이상 보세공장을	
하나로 통합관리	
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충족	○ 다음 각 호를 <u>모두</u> 충족
• 제조·가공 공정상 일괄작업에 각	• <현행과 같음>
공장이 필요	
• 직선거리 15km 이내	• 직선거리 <u>30km</u> 이내

개정전	• H조선사는 신규 공장 증설이 필요하나,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포화로 가용 부지가 부족해 <b>기존 보세공장과 15km 이내</b> 에 신규 공장 증설 불가능
개정후	• 단일보세공장 거리제한이 30km 이내로 완화됨에 따라, H조선사는 부근 산업단지에 제2공장을 신축하여 기존 보세공장의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됨

- □【기대효과】단일보세공장 증설 용이,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신속한 물류이동에 따른 수출물품 제조·가공 기간 단축
- □【시행일】'25. 2월 시행 예정(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7조 개정)

## ③ 자율관리(우수) 보세공장 지정요건 완화

(보세산업지원과, 042-481-782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요건(제36조)	□ <u>지정요건 완화</u>
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(AEO)	• <현행과 같음>
• 보세사 채용	• <현행과 같음>
• ERP 등 업무처리시스템, 세관 전용	• <현행과 같음>
화면 제공 또는 열람 권한 제공	
• <신설>	• 국가 보안 등의 사유로 열람 권
	한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, 세관
	직원이 업체 방문을 통한 열람
	요구 시 열람을 보장한다는 확약
	서를 제출하고 세관장이 이를 인
	정하는 경우

	〈 사 례 〉
개정전	• K방산업체 A사는 보안문제로 세관에 업무처리시스템 열람권한을 제공할 수 없어 <b>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 불가능</b>
개정후	• K방산업체 A사는 업무처리시스템 열람권한 제공 대신 세관직원 방문을 통한 <b>자료열람 협조에 동의</b> 함으로써 <b>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</b> 이 가능해짐

- □【기대효과】보안문제로 열람권한 제공이 어려운 **K방산업체** 등도 자율 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받아 **업무효율성** 및 **경쟁력 향상**
- □【시행일】'25. 2월 시행 예정(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30조 개정)

#### ④ 보세공장 잉여물품 관리 간소화

(보세산업지원과, 042-481-782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잉여물품의 재고관리(제33조)	□ <u>내·외국 구분 관리가 어려운 잉여</u> 물품의 재고관리 방법 완화
• <신설>	<ul> <li>다음 각 호의 잉여물품에 대해 내·외국 구분 없이 전산시스템에 기록·관리하는 방식으로 보관 또는 반출입 허용</li> <li>설계도면 등에 의해 정확한 손모증량 산출이 가능한 비금속(卑金屬)원재료의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으로서 기본 관세율이 0%인 것(설계손모량에 따라 중량 관리)</li> <li>원재료·제품에 전용된 후 재사용하지 않는 포장·운반용품·용기로부터발생한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(내·외국 원재료의 혼용 중량 비율에 따라 중량 관리)</li> </ul>

	•보세공장 H조선사는 원재료 포장박스와 절단작업 후 발생하는 철강
개정전	스크랩의 수입통관을 위해 각각 <b>별도 장소에 내·외국물품을 구분 보관</b>
	하면서, 전 공정에서 <b>내·외국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</b> 해 옴
	• 이번 규제혁신으로 한 장소에서 <b>내·외국 구분없이 통합 보관·관리</b> 하고
개정후	설계손모량 등에 따른 중량으로 수입신고함에 따라 공간활용, 비용절감,
	업무 효율성 제고 및 생산 속도도 향상됨

- □【기대효과】보세공장 잉여물품의 내·외국 구분 관리 부담 해소로 작업 효율성 향상, 인건비 절감, 공간활용, 신속 제조 가능
- □【시행일】'25. 2월 시행 예정(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33조 개정)

## ⑤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신청가능 협정·대상 확대

(원산지검증과, 042-481-320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사전심사 신청대상 제한	□ 사전심사 신청대상 확대
<ul> <li>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협정·대상의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</li> </ul>	○ 협정에서 사전심사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토록 확대  * (협정) 한-EFTA FTA에 대해서도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* (대상) 「FTA관세법」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심사 대상 항목 7개에 대해 협정과 관계없이 전체 신청가능 하도록 허용

개정전	• 국내기업 A사는 스위스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수입통관하며 한-EFTA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고 싶었으나, 해당 협정에는 원산지 사전심사가 규정되지 않아 사전심사 신청이 불가함
개정후	• 한-EFTA FTA에는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가 별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, A사는 국내법에 근거하여 스위스에서 수입해오는 물품이 한-EFTA FTA에 따른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심사 신청 가능

- □【기대효과】FTA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가능 협정 및 대상 확대를 통해, 수입기업의 협정관세 적용 관련 법적안정성 제고
- □【시행일】'25. 1. 1. 시행(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제31조 개정)

# ⑤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 조정

(관세국경감시과, 042-481-791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 물품(제155조)	□ <u>내국물품을 보세구역 장치 의무</u>
	대상에서 제외
• 외국물품	• <현행과 같음>
• 국제무역선(기)로 내국 운송을	• 삭제
신고하려는 내국물품	

,	〈 사 례 〉
개정전	• A사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탄 1000톤을 평택항과 인천항에 각각 500톤씩 분할 하역하려고 내국운송신고를 하였으며, 내국운송 내국물품의 보세구역 장치의무 규정으로 인해 최초 하역항인 평택항 에서 화물 전량을 하역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인천항 하역 물량을 국제무역선에 다시 적재
개정후	• A사는 입항전 수입신고 수리된 석탄 중 최초 하역항인 평택항에서 <b>500</b> <b>톤을 하역하고 출항</b> 한 후 인천항에서 <b>나머지 500톤을 하역</b>

- □【기대효과】내국운송 절차를 간소화로 물류비용 절감
- □【시행일】'25. 1. 1. 시행(「관세법」개정)

## ☑ 일시수출입 특수차량 신고인 확대

(통관물류정책과, 042-481-7815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일시수출입 차량 신고인(제5조제2항)	□ 신고인 확대
● 특수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수출입 하는 화주	• 수출입 하는 <u>화주·관세사·통관취급</u> 법인 등으로 확대

개정전	• 부산 소재의 반도체 제조기업 S사는 일본으로부터 <b>반도체 설비 수입 시</b> 무진동 특수차량을 이용, 차량 일시수출입 신고 시 화주 직접신고만 가능 하여 신고 불편 및 통관 지연 발생
개정후	• 부산 소재의 반도체 제조기업 S사는 일본으로부터 <b>반도체 설비 수입 시</b> 무진동 특수차량을 이용, A관세사에게 차량 일시수출입 신고 위탁으로 신고 편의 및 신속 통관으로 물류비 절감

- □【기대효과】신고 편의 개선 및 신속 통관으로 물류비 절감에 기여
- □【시행일】'25. 6. 1. 시행 예정(「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」개정)

#### 图 우수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신고 자동수리 확대

(보세산업지원과, 042-481-782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보세공장 보세운송신고 자동수리	□ 보세운송 특례요건 완화
요건(제30조)	
• 동일법인 보세공장 간 반출입물품	• <현행과 같음>
• FTA형 특별보세공장 반출입 물품	• <현행과 같음>
• 원재료 등 상호 반출입이 빈번한	• 반출입 횟수에 관계 없이 법규준
보세공장 간 반출입물품	수도 우수 보세공장의 반출입물품
- 최근 3개월의 해당 업체 간 반출	- 최근 3개월동안 해당 업체가 관세
입 횟수가 월평균 20회 이상	법 또는 FTZ법을 위반하여 <u>통고</u>
	처분 또는 반입정지, 과징금 부과,
	고발, 송치된 이력이 없는 경우

# 개정전 • 반도체 보세공장 E사는 우수업체임에도 보세운송 횟수가 적은 일부 신규 거래업체와 보세운송 시에는 자동수리 되지 않아 물류지체 발생 개정후 • 특례요건 완화로 신규 거래업체와 보세운송할 때도 즉시 특례적용을 받게되어, 주말이나 야간에 신속한 반출입 및 원재료 적기 투입이 가능해짐

□【기대효과】보세공장 간 원재료 반출입 신속화로 업무효율성 향상 및 신속한 물류이동에 따른 수출물품 제조·가공 기간 단축 □【시행일】'25. 2월 시행 예정(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30조 개정)

## ⑨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시행

(기업심사과, 042-481-7656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관세조사 중지(훈령 제36조)	□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
• 관세조사 중지 시 중지 횟수에 관계	•동일한 관세조사건에 대해 3회를
없이 관세청장 승인 후 조사대상	<b>초과하여 중지</b> (조사대상자 요청에
자에게 통보	의한 중지는 제외) <b>하는 경우</b> 에는
	납세자보호관 등의 사전 승인을
	받아 중지

- □【기대효과】반복적 관세조사 중지에 따른 조사기간 장기화 해소
- □【시행일】'25. 1. 1. 시행 (「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」 제36조제1항)

## 10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

(자유무역협정집행과, 042-481-7968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ul><li>□ 협정관세 사후적용* 신청 대상</li><li>*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율 적용</li></ul>	□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추가 (※ 수리 후 1년 경과한 경우)
<ul> <li>【원칙】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</li> <li>【예외】세관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</li> </ul>	(좌 동)
< 신 설 >	<ul> <li>수입자가 「관세법」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정 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45일 이내</li> </ul>

개정전	• S사는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으로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고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으나, 수입신고 수리 후 1년이 경과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불가
개정후	•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으로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한 S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수정신고 한 날부터 45일 이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

- □【기대효과】 수입자 스스로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세액을 신고 납부한 때에도 이를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
- □【시행일】'25. 1. 1. 시행(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2항 개정)

#### Ⅲ RCEP 수출자·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방식 추가

(자유무역협정집행과, 042-481-7968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RCEP 원산지증명 방식	□ RCEP 원산지증명 방식 추가
<ul><li>기관발급 원산지증명 방식</li><li>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</li></ul>	(좌 동)
< 신 설 >	○ 수출자·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 - (대상 회원국) 한국·일본·호주·뉴질랜드

개정전	• 일본에 신발을 수출하는 S사는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
개정후	• 일본에 신발을 수출하는 S사는 수출자 스스로 RCEP 원산지증명서를 작성·발급하여 일본 수입자에게 제공

- □【기대효과】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함으로써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및 기업 부담 완화
- □【시행일】'25. 1. 1. 시행(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5의2 신설)

#### 12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

(관세국경감시과, 042-481-791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보세창고 내 물품 장치기간(제177조)	□ 내국물품 장치기간 확대
• 외국물품 : 1년 범위 + 1년 연장 可	• <현행과 같음>
• 내국물품 : 1년 범위	• 1년 범위 + 1년 연장 가능

#### 

- □【기대효과】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간 형평성 제고 및 창고의 탄력· 효율적 운영으로 물류비용 절감 등 물류산업 지원
- □【시행일】'25. 1. 1. 이후 연장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(「관세법」개정)

## 🔞 수입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확대

(심사정책과, 042-481-7862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관세부과 제척기간	□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신설
• (원칙)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	<현행과 같음>
●( <b>예외</b> ) 부정행위의 경우 10년	
<추 가>	•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
	경우 7년

- □【기대효과】수입 무신고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관세부과의 실효성 제고
- ○【시행일】'25. 1. 1. 시행(「관세법」 제21조 개정)

# [4] 부정행위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

(심사정책과, 042-481-7862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관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율	□ 가산세율 상향
●(원칙) 부족세액의 10%	<현행과 같음>
- ( <b>예외</b> ) 부정 과소신고*시 40%	- 부족세액의 40 → 60%
*① 허위증명·허위문서 작성이나 수취 ②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③ 관세부과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 조작·은폐 ④ 그 밖에 포탈, 환급 또는 감면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	
● (무신고) 해당 관세액의 20%	<현행과 같음>
- ( <b>밀수입죄로 처벌시</b> ) 해당 관세 액의 40%	- 해당 관세액의 40 → 60%

- □【기대효과】납세자의 정확한 납세신고를 유도하여 자발적 법규준수 제고
- ○【시행일】'25. 1. 1. 시행(「관세법」 제42조 개정)

## 15 과세자료 제출기관 추가

(조사총괄과, 042-481-793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	□ 과세자료 제출기관 추가
지방자치단체, 여신전문금융협회,	
금융회사 등으로 규정 (제264조	
의2)	
< 신 설 >	•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
	한 법률」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
	- 과세자료 :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
	자의 가상자산거래 내역

- □【기대효과】체납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
- □【시행일】'25. 1. 1. 시행(「관세법」제264조의2제7호 신설, 「관세법 시행령」제263조의2 별표 3 개정 예정)

# 16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범위 확대

(조사총괄과, 042-481-7818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	
□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제한	□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범위 확대	
(제235조)		
• < 신 설 >	• 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에 따른	
	방위산업기술	
□【기대효과】지식재산권 등(방위산업기술)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통관보류 또는 유치 가능		
□【시행일】'25. 1. 1. 시행(「관세법	↓」 제235조 개정)	

#### [] 가격조작죄 벌금형 산정기준 합리화

(조사총괄과, 042-481-793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가격조작죄의 벌금 기준은 물품	□ 가격조작죄의 벌금 기준에 '신고
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	가격과 과세가격의 차액'을 추가
하(제270조의2)	
• 아래 중에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	• 아래 중에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
- 5천만원	- 5천만원
- 물품원가	- 물품원가
	- 신청 또는 신고한 물품가격과
	과세가격 간의 차액

#### 〈 사 례 〉

- 1억원으로 가격 신고시 벌금 비교

물품가격(원가)	조작차액	
7천만원	3천만원	
4천만원	6천만원	

개정전 벌금 **7천만원**5천만원

VS.

개정후 벌금 **7천만원 6천만원** 

- □【기대효과】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, 보조금·투자금 편취 등 불 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제고
- □【시행일】'25. 1. 1. 시행(「관세법」 제270조의2 개정)

# 18 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

(조사총괄과, 042-481-7818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□ 명의대여행위죄의 대상 및 처벌	□ 처벌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
내용(제275조의3)	
• 처벌 대상	• 처벌 대상
< 신 설 >	- 타인명의 사용 탁송품 또는
	우편물 수입
• 처벌형량	• 처벌 형량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	- 타인명의 사용 : 2년 이하 징역
이하의 벌금	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	- 자신의 명의사용 허락 : 1년 이하
	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	채외지구에 아요하느 해의를 차다

□【시행일】'25. 1. 1. 시행(「관세법」 제275조의3 개정)